

간호전문직관과 교수효율성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권상민¹, 이정화^{2*}, 권려원², 이지현²
¹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²경운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ienc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Sang Min Kwon¹, Jeong Hwa Lee^{2*}, Ryeo Won Kwon², Ji Hyun Lee²
¹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D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252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분석,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분석, Scheffe test 사후검정,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전문직관 평균 평점은 3.81점, 교수효율성은 3.27점, 임상수행능력은 3.60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간호전문직관과 교수효율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별,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요인이 높은 것은 간호전문직관이였다. 영향요인의 설명력은 19.6%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관과 교수효율성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과 교수효율성을 고려한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eaching efficien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252) in D province completed this study questionnaire.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3rd to 11th May in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1.0. The results reveal that nursing students had a medium level of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x, nursing professionalism, teaching efficiency,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9.6%.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iency were influence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iency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clinical practice education programs to increase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Professionalism, Teaching Efficiency,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Corresponding Author : Jeong Hwa Lee(Kyungwoon Univ.)

email:awhjeong@ikw.ac.kr

Received May 15, 2020

Accepted August 7, 2020

Revised July 1,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의료 산업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또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건강 서비스직의 전문화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도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임상실무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1]. 이에 간호교육은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 학습 성과 기반을 둔 교육평가체제를 강화하고 있다[2]. 간호학생은 간호학 이론습득은 물론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다양한 실제 지식과 경험, 가치관과 태도, 응용력을 학습하기도 한다[3]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기술 및 판단을 보여주고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4]. 따라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통해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간호수행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임상현장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되고, 졸업 후 통합적 실무적용 능력을 갖춰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통해 개인적 만족은 물론, 대중들로부터 간호의 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5]. 간호는 인간의 생명과 권리 및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가치로 삼는 학문이므로 타학문에 비해 직업적 윤리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전인간호 실천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간호전문직태도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6,7]가 대부분이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과 관련하여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조사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Hallin와 Danielson[8]은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Hwang & Park[7]의 연구에서도 간호교육을 통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향상된다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런 선행연구결과들을 볼 때 간호학

생들이 변화하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준비와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현 임상실습교육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찰위주의 현장실습과 자격을 갖춘 임상실습교수의 부족 등의 열악한 실습환경으로 체계적인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수의 역할 중 하나인 교수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수효율성은 임상교수들이 다양한 교수활동을 통해서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호학생에게 실습에 임하는 태도, 조직적인 기술과 자신감을 주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실습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며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이처럼 임상실습교육에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시 됨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 현장의 현실은 부족한 임상실습교수와 제한된 실습환경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4,7,9]. 그러나 임상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과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들 간의 관련성과 더불어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임상실습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urvey study)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272명 전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한 261명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252명이 연구에 최종으로 참여하였고, 연구 표본크기는 G*power 3.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95, 중간 효과크기(ES)=.15, 그리고 예측요인 6개를 적용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가 146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간호전문직관

Yeun 등[10]이 개발한 전문직관 측정도구를 Kim[11]이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항으로 5개 요인인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었다. 2개의 부정적 문항(17, 18)은 역환산하였고, 점수 범위는 1-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다.

2.3.2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Reeve[12]이 개발한 교수효율성 측정도구(IMECL: Instrument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를 Kim[13]이 번역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13개 요인인 대인관계술 8문항, 의사소통술 3문항, 역할모델 3문항, 원조자 3문항, 유용성 6문항, 격려와 지지 5문항, 평가 5문항, 교수법 3문항, 대상자 배정 3문항, 조직성 4문항, 전문적 능력 3문항,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2문항, 실습지

의 직원과의 협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었다. 3개의 부정적 문항(17, 42, 44)은 역환산하였고, 점수범위는 1-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7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Lee 등[14]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Choi[15]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6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인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 및 협력관계 9문항,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못 한다' 1점, '약간 못 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잘 한다' 4점, '매우 잘 한다' 5점을 주었다. 점수범위는 1-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Choi[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11일 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자의적으로 연구 참여에 수락한 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및 임상수행능력은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Scheffè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 중 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를 하여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9.3%, 연령은 20-25세가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업성적은 평균 평점 3.0-3.9가 77.7%로 가장 많았고, 전공 적응도는 보통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62.7%로 과반수 이상 이었고, 전공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50.8%,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3.1%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2)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27	10.7
	Female	225	89.3
Age	20-25	228	90.5
	26-29	12	4.8
	≥30	12	4.8
Academic achievements	2.0-2.9	45	17.9
	3.0-3.9	196	77.7
	≥4.0	11	4.4
Major adaptation	Well	82	32.5
	Common	158	62.7
	Not	12	4.8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128	50.8
	Common	111	44.0
	Dissatisfaction	13	4.8
Satisfaction on clinical experience	Satisfaction	59	23.4
	Common	159	63.1
	Dissatisfaction	34	13.5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및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및 임상수행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평점 3.81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학업성적(F=3.67, p=.027), 전공적응도(F=10.62, p<.001), 전공만족도(F=9.08, p<.001), 임상실습만족도(F=10.1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0-2.9인 대상자가 4.0이상인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적응도, 전공만

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이 '보통이다', '불만족이다',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교수효율성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27점이었고, 성별(t=3.06, p=.002), 학업성적(F=3.81, p=.023), 전공적응도(F=8.46, p<.001), 전공만족도(F=6.07, p=.003), 임상실습만족도(F=20.1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교수효율성이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3.9인 대상자가 4.0이상인 경우 보다 교수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보통정도의 적응과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교수효율성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한 경우보다 높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과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교수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평점 3.60점이었으며, 성별(t=2.20, p=.028), 전공적응도(F=4.98, p=.008), 전공 만족도(F=5.50, p=.005), 임상실습만족도(F=3.22, p=.04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임상수행능력이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전공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경우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보다,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임상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과 불만족으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Table 2. Differ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2)

Variable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3.70±.43	-1.35 (.178)	
	Female	3.83±.48		
Age	20-25	3.80±.47	1.7 (.169)	
	26-29	3.84±.46		
	≥30	4.06±.55		
Academic achievements	2.0-2.9 ^a	3.94±.48	3.67 (.027)	a)c
	3.0-3.9 ^b	3.80±.47		
	≥4.0 ^c	3.53±.30		
Major adaptation	Well ^a	3.99±.46	10.62 (<.001)	a)b, c
	Common ^b	3.74±.45		
	Not ^c	3.55±.51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	3.92±.43	9.08 (<.001)	a)b, c
	Common ^b	3.72±.49		
	Dissatisfaction ^c	3.51±.50		
Satisfaction on clinical experience	Satisfaction ^a	4.02±.46	10.11 (<.001)	a)b, c
	Common ^b	3.78±.47		
	Dissatisfaction ^c	3.60±.40		
Total		3.81±.47		

Table 3. Differences of teaching efficienc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ies	Teaching efficiency		
		M±SD	t or F (p)	Scheffè
Gender	Male	3.58±.57	3.06 (.002)	
	Female	3.24±.56		
Age	20-25	3.25±.55	2.10 (.124)	
	26-29	3.49±.49		
	≥30	3.50±.80		
Academic achievements	2.0-2.9 ^a	3.25±.65	3.81 (.023)	b)c
	3.0-3.9 ^b	3.30±.54		
	≥4.0 ^c	2.83±.57		
Major adaptation	Well ^a	3.45±.61	8.46 (<.001)	a)b, c
	Common ^b	3.21±.52		
	Not ^c	2.86±.53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	3.37±.58	6.07 (.003)	a)c
	Common ^b	3.20±.54		
	Dissatisfaction ^c	2.88±.43		
Satisfaction on clinical experience	Satisfaction ^a	3.60±.55	20.12 (<.001)	a)b, c
	Common ^b	3.23±.52		
	Dissatisfaction ^c	2.90±.54		
Total		3.27±.57		

Table 4. Differences of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ies	Clinical competence		
		M±SD	t or F (p)	Scheffè
Gender	Male	3.78±.42	2.20 (.028)	
	Female	3.58±.44		
Age	20-25	3.59±.44	2.38 (.094)	
	26-29	3.70±.51		
	≥30	3.85±.40		
Academic achievements	2.0-2.9 ^a	3.62±.47	.77 (.464)	
	3.0-3.9 ^b	3.61±.44		
	≥4.0 ^c	3.44±.41		
Major adaptation	Well ^a	3.70±.45	4.98 (.008)	a)c
	Common ^b	3.58±.43		
	Not ^c	3.31±.37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	3.68±.42	5.50 (.005)	a)c
	Common ^b	3.54±.45		
	Dissatisfaction ^c	3.34±.39		
Satisfaction on clinical experience	Satisfaction ^a	3.73±.44	3.22 (.042)	a)b, c
	Common ^b	3.57±.43		
	Dissatisfaction ^c	3.56±.44		
Total		3.60±.44		

3.3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관($r=.37, p<.001$), 교수효율성($r=.3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교수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6, p<.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nursing professionalism, teaching efficiency and clinical competence (N=252)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Teaching efficiency	Clinical competence
	r(p)		
Nursing professionalism	1		
Teaching efficiency	.36 (<.001)	1	
Clinical competence	.37 (<.001)	.34 (<.001)	1

3.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전공적응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을 반응변수로 하여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6>와 같다.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tolerance)가 .846-.937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68-1.217로 모두 10보다 낮으므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45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정규분포성이나 등분산성은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상에서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전문직관($t=5.06, p<.001$), 교수효율성($t=3.33, p=.001$), 성별($t=-2.13, p=.034$)이 유의미

Table 6. Factors influencing of clinical competence (N=252)

Variable	Clinical competence				
	β	t	p	Adjusted R ²	F
Nursing professionalism	.31	5.06	<.001	.196	21.41
Teaching efficiency	.20	3.33	.001		
Gender	-.12	-2.13	.034		

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은 간호 전문직관($\beta=.31$)이었으며, 교수효율성($\beta=.20$), 성별($\beta=-.12$)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간호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19.6% 설명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60점이었다. 이는 중간보다 높은 점수로 4학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Kang 등[2]의 연구,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16]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Koo 등[9]의 연구에서는 3.48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Hong & Cho[17]의 연구에서는 3.46점으로 나온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실습 시간에 비례하여 경험이 많아지고, 실습환경에 적응하여 자신감이 생기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전반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편차가 감소한 것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간호교육평가인증으로 인하여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교육 질 관리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사료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실습, 통합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등 다양한 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교육인증평가에 평가영역으로 포함되어 간호학과별 학생들의 능력이 표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성별, 전공적응도, 전공 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여학생에 대한 임상수행능력 향상 방안과 더불어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및 실습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공동체, 전공동아리 활용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평점 3.81점으로 4년제 간호대학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Ko 등[18]의 연구, Park & Yoo[19]의 연구결과보다는 약간 높았다. 선행연구들보다 높은 간호전문직관을 보인 것은 선행연구와 달리 연구대상을 졸업 학년인 4학년에 제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전

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고 교육을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다고 한 Schank & Weis[20]의 주장과도 상통하는 것이며, 1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낮고, 4학년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Ko 등[1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성적, 전공적응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연령, 학업성적, 간호학과 선택 동기, 간호학전공 만족도 및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 Park 등[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Ko & Kim[22]과 Martin, Yarbrough, & Alfred[2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연구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교수효율성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27점으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oo 등[9]의 연구에서는 평균 3.50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Hong & Cho[17]의 연구에서는 평균 3.38점,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Hwang & Park[7]의 연구에서는 평균 3.32점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임상실습 지도를 겸임교수와 임상현장지도자인 병동관리자에게 거의 위임하는 형태로 시행한 본 연구와 임상에서 숙련된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1:1의 관계에서 실습지도한 선행연구의 임상실습지도체계 차이에서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이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동관리자 대신 준비되고 훈련된 전문실습지도자(preceptor)를 임상실습지도에 활용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교수효율성은 성별, 학업성적, 전공적응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Yu[24], Koo 등[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이에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교수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교수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으로 임상실습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Koo 등[9]의 연구결과와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은 증가된다고 한 Hwang & Park[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짐을 검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학생들이 긍정적인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확립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간호학 교과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효율성이 높을수록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상에서의 교수의 행동과 태도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 Makaren 등[25]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생각되며, 산학과의 긴밀한 연계,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임상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라 판단된다.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수행능력 관련 변인들을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19.6%를 설명하였다. 성별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Kang[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차이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은 간호전문직관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 전문직 자아개념이라고 한 Hwang & Park[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진 간호대학생이 졸업 이후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간호업무 수행에서도 성과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26, 27]. 이에 대학과 학과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교과목의 편성과 직업가치관 및 직업의식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수효율성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임상실습 교수자의 역량이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Hwang & Park[7]과 Koo 등[9]의 연구결과와 임상실습 교수효율

성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라고 한 Han & Park[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런 결론을 토대로 볼 때 산학 공동연구, 실습지침서의 공동개발 및 정기적인 임상현장지도자 교육 등과 같은 긴밀한 산학연계를 통해 임상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설명력이 19.6%로 낮게 나타난 것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 외에 다른 많은 추가 관련변수들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내·외적 변인들을 규명하는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호전문직관과 교수효율성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과 교수효율성을 고려한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연구로 연구대상은 D시의 일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252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학업성취도, 전공적응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교수효율성은 성별, 학업성취도, 전공적응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임상수행능력은 성별, 전공적응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간호전문직관과 교수효율성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간호전문직관, 교수효율성으로 임상수행능력을 19.6% 설명하였으며,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은 간호전문직관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간호전문직관과 교수효율성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과 교수효율성을 고려한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립과 교수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모형 구축과 요인간의 직간접 경로를 확인하는 탐색적 구조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변인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인에 대해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를 포함해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 주도적 학습,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의 다차원적 요인을 고려한 검증연구가 후속연구로 이어진다면 향후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J. S. Kim, S. J. Park,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rch*, vol.3, No.3, pp. 13-22, 2019.
DOI:<https://doi.org/10.34089/jknr.2019.3.3.13>
- [2] H. S. Kang, Y. Y. Kim, H. S. Lee,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r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389-398, 2018.
DOI:<https://doi.org/10.5762/KAIS.2018.19.3.389>
- [3] T. Rothhoff, T. Baehring, D. M. David, C. Bartnick, F. Linde, R. Willers et al, The value of traing in communication skills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Patient Education & Counselling*, Vol.84, No.2, pp.170-175, 2011.
DOI:<https://doi.org/10.1016/j.pec.2010.07.034>
- [4] J. Y. Han, H. S. Park,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Vol.18, No.3, pp.365-372, 2011.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09393>
- [5] D. Adams, B. K. Miller, Professionalism in nursing behaviors of nurse practitioners, *J Prof Nurs*, Vol.17, No.4, pp.203-210, 2001.
DOI:<https://doi.org/10.1053/jpnu.2001.25913>
- [6] H. O. Kang,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l University; 2010.
- [7] J. W. Hwang, H. J. Park,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3, pp. 601-615, 2019.
DOI:<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23.601>
- [8] K. Hallin,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 No.1, pp.62-70, 2008.
DOI:<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66.x>
- [9] S. M. Koo, H. J. Kim, E. J. Ki,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eaching efficiency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7, pp.27-43, 2018.
DOI:<http://dx.doi.org/10.22251/ilcci.2018.18.17.27>
- [10]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2, pp.1091-1100, 2005.
DOI : <http://dx.doi.org/10.4040/jkan.2005.35.6.1091>
- [11] M. H.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nursing as professionalism, master's thesis, Seoul: Kyung Hee University; 2008.
- [12] M. M. Reev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3, No.1, pp.15-20, 1994.
- [13] M. A. Kim, A study of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6.
- [14] W. H. Lee, J. J. Kim, J. S. Yoo, H. K. Huh, S. M. Lim, A research tool for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Bulletin of Yonsei Nursing*, Vol.13, pp.17-27, 1990.
- [15] H. Y. Choi,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linical performance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l: Chosunl University; 1992.
- [16] Y. J. Kim, S. B. Lee, C. E. Jang, J. G. Choe, h. J. Hwang, The effect of adversity quotient profile, self-leadership and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on the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3, No.3, pp.75-84, 2019.
DOI:<https://doi.org/10.34089/jknr.2019.3.3.75>
- [17] S. M. Hong, H. S. Ch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Vol.10, No.3, pp.199-215, 2009.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66555>
- [18] J. E. Ko, M. H. Kim, E. J. Kim, H. J. Kim, J. E. Eom, H. A. Lee, N. R. Jang, D. E. Jang,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The Ewha Medical Journal*,

Vol.15, No.1, pp.29-44, 2011.

- [19] M. J. Park, H. N. Yoo,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5, No.1, pp.38-47, 2019.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38>
- [20] M. J. Schank, D. Weis, Exploring commonality of professional values among nurse educators in the United State and England,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9, No.1, pp.41-44, 2000.
- [21] M. S. Park, M. H. Lee, J. A. Gu,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29, No.2, pp. 111-123, 2011.
- [22]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7, No16, pp.62-71, 2011.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23] P. Martin, S. Yarrbrough, d. Alfred, Professional values held by baccalaureate and associate degre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5, No.3, pp.291-296, 2003.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3.00291.x>
- [24] H. 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2, pp.1129-1144, 2015.
- [25] S. Makaren, N. Y. Dumit, M. Adra, K. Kassak, Teaching effectiveness and learning outcome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a critical care practicum: A lebanese experience, Nursing Outlook, Vol.49, No.1, pp.43-49, 2001.
DOI:<https://doi.org/10.1067/mno.2001.111186>
- [26] J. A. H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incivility perceive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5, pp.167-183, 2019.
DOI:<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5.167>
- [27] K. M. Yang,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445-453, 2017.
DOI:<http://dx.doi.org/10.14400/JDC.2017.15.12.445>

권 상 민(Sang Min Kwon)

[중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2009년 9월 : 대구과학대학교 전임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 간호교육, 응급재난

이 정 화(Jeong Hwa Lee)

[정회원]



- 2003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권 려 원(Ryeo Won Kwon)

[중신회원]



- 1996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4년 3월 ~ 2013년 8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이 지 현(Ji Hyun Lee)

[정회원]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재난응급, 건강증진